

## 참고 3.

### 자영업자 부채의 잠재위험과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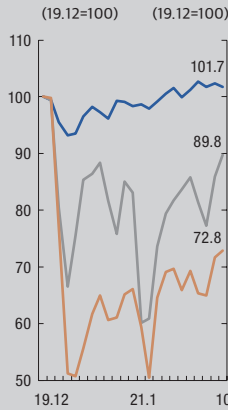
최근 자영업자는 숙박음식업 등을 중심으로 소득 개선이 미진한 가운데 부채<sup>1)</sup>가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부채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관련 잠재위험을 점검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자영업자 매출 및 대출 동향

자영업자 매출은 방역 상황 등에 따라 부진 정도가 달라지는 가운데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의 매출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밑돌고 있다.<sup>2)</sup> 금년 10월 숙박음식업 생산은 2019년 12월(계절조정지수 기준)의 89.8%, 여가서비스업 생산은 72.8% 수준에 머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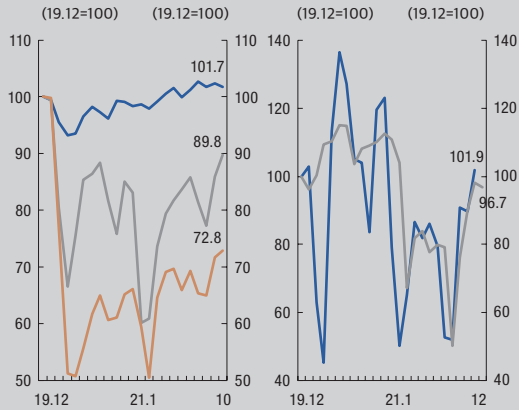
#### 서비스업 생산지수<sup>1)</sup>

— 도소매  
— 숙박음식  
— 여가



#### 소상공인 경기동향

— 매출 체감  
— 매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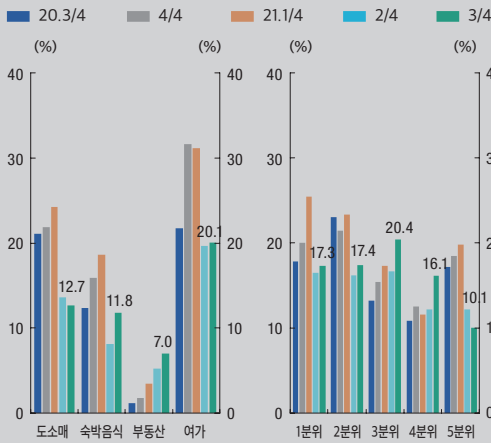
주: 1) 계절조정지수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청

반면,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대출은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sup>3)</sup>하였다. 2021년 3/4분기말 자영업자대출 잔액은 887.5조원<sup>4)</sup>으로 전년동기대비 14.2% 증가하였다. 업종별로는 대면서비스 업종인 도소매업(12.7%), 여가서비스업(20.1%) 등에서, 소득분위별로는 중·저소득층(1~3분위)에서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 1) 한국은행은 가계부채DB(약 100만 차주로 구성된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자영업자로 식별하고 이들이 보유한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합계하여 자영업자대출 규모를 추정하고 있다.
- 2) 2021년 11월 현재 소상공인 매출체감지수 및 매출전망지수는 2019년말 대비 각각 101.9% 및 96.7% 수준이며 업종별(경기체감)로는 소매업 82.6%, 여가서비스 92.6%, 개인서비스 98.3% 수준이다(소상공인 경기동향조사, 21년 11월).
- 3) 자영업자대출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2/4분기부터 증가세가 큰 폭 확대(20년 1/4분기 10.0% → 2/4분기 15.4% → 3/4분기 15.9% → 4/4분기 17.3% → 2021년 1/4분기 18.8% → 2/4분기 13.7% → 3/4분기 14.2%)되었으며 가계대출 증가율(2021년 1/4분기 9.5% → 2/4분기 10.5% → 3/4분기 10.0%)을 상회한다.
- 4) 2021년 9월말 자영업자대출 규모(887.5조원, 차주 수 257.2만명)는 개인사업자대출 583.5조원, 가계대출 304.0조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전체 금융권 기업대출의 59.3%, 가계대출의 50.9% 수준이며 기업 및 가계대출 총계(3,240.4조원)의 27.4%를 차지한다.

### 자영업자 업종별 대출 증가율<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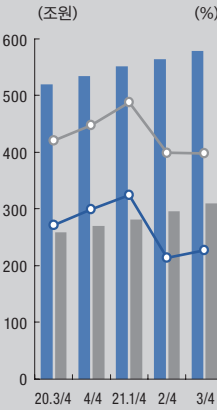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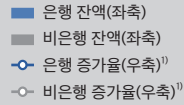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 자영업자 소득분위별 대출 증가율<sup>1)</sup>



### 자영업자 업권별 대출규모



주: 1) 전년동기대비  
2) 전분기 기준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이 없는 차주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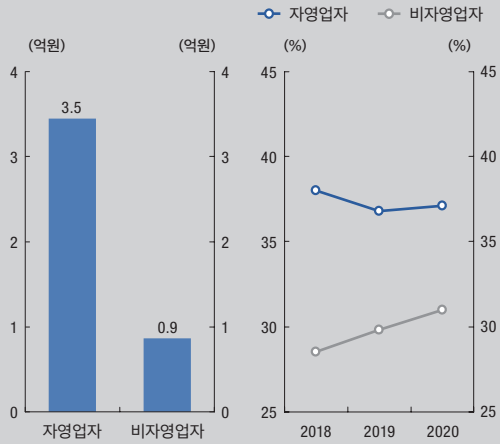
금융업권별로는 대출금리가 높은 비은행금융기관의 자영업자대출이 은행보다 빠르게 증가하여 자영업자의 채무부담이 늘어나는 모습이다. 자영업자 신규차주는 코로나19 직후인 2020년 2/4분기중 큰 폭 증가하였다가 3/4분기 이후에는 다소 진정세를 보였다. 또한 자영업자의 연체율(국내은행 개인사업자대출 기준, 0.19%)은 금융지원 조치 등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여 일반 가계대출(0.17%)과 비슷한 수준이다.

### 자영업자 부채 관련 잠재위험

#### (높은 원리금 상환부담)

자영업자는 사업자금 조달 등으로 임금근로자 등 비자영업자보다 대출규모가 훨씬 크다. 2021년 9월말 자영업자의 1인당 대출규모는 3.5억원으로 비자영업자(0.9억원)의 4.0배 수준이다. 자영업자 가구의 원리금상환비율(DSR, 2020년 가금복 기준)은 37.1%로 비자영업자 가구의 DSR(31.0%)을 상당폭 상회한다.

## 자영업자 1인당 대출규모<sup>1)</sup> 자영업자 DSR<sup>2)</sup>



주: 1) 2021년 9월말 가계부채DB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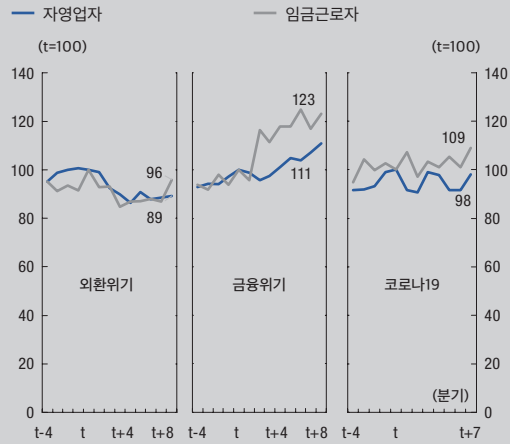
2)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통계청

### (부진한 소득개선 흐름)

자영업자의 소득흐름은 임금근로자보다 대내외 충격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왔다. 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자영업자 소득은 임금근로자보다 회복이 더디게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소득은 임금근로자와 달리 큰 폭 감소하였으며 2021년 9월말 현재에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sup>5)</sup>

## 자영업자 및 임금근로자 소득<sup>1)</sup> 추이<sup>2)</sup>



주: 1)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기준

2) t는 외환위기 1997년 3/4분기, 금융위기 2008년 3/4분기, 코로나19

2019년 4/4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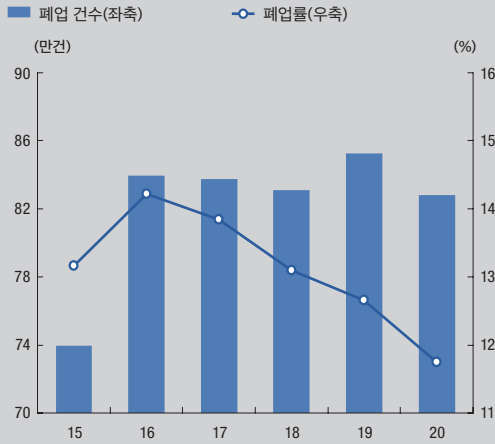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폐업 지연에 따른 부채 누증)

2020년중 자영업자 폐업률은 11.8%로서 2019년 12.7%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매출충격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 지원, 폐업 시 자영업자 손실 보상 제외 우려, 권리금 상실 가능성, 다른 업종으로의 전환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폐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 부채가 누증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5)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2019년중 153.8만명에서 2020년중 137.2만명으로 큰 폭 감소하면서 2000년대 이후 최저치(연평균 기준)를 기록하는 등 업황부진이 지속되었으며 2021년 10월 기준 131.3만명을 기록하고 있다.

## 자영업자 폐업률<sup>1)</sup> 및 폐업 건수



주: 1) 폐업 개인사업자 수/전년도 개인사업자 총계  
자료: 국세청

## (부동산 가격 하락에 취약한 채무상환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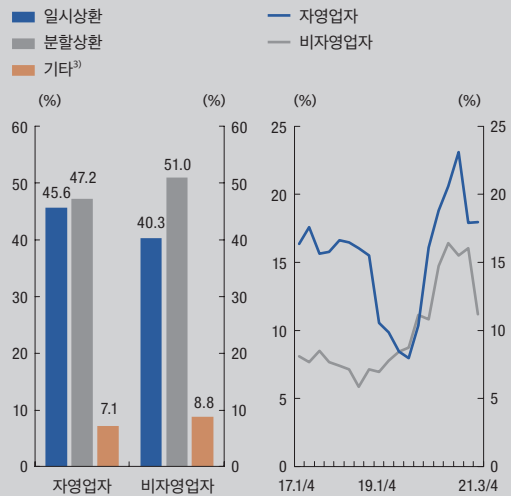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은 부동산 가격 변동에 취약하다. 자영업자의 가계대출 중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은 69.3%로 임금근로자 등의 비자영업자(55.7%)보다 높으며 이중 주택외 부동산담보대출 비중(29.0%)은 비자영업자(11.7%)의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상가 등의 주택외 부동산담보는 주택에 비해 환금성이 떨어지고 경매 낙찰가율<sup>6)</sup>도 낮게 형성된다.

## (취약한 부채구조)

자영업자의 부채구조는 일시상환대출 비중이 높고 만기가 짧아 차환리스크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2021년 9월말 현재 자영업자의 일시상환대출 비중(가계대출 기준)은 45.6%로 비자영업자(40.3%)보다 높으며 개인사업자대출 중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하는 대출이 69.8%에 달한다.<sup>7)</sup> 또한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의 신용대출 증가세가 가파른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신용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등에 비해 연체율<sup>8)</sup>이 높으며 변동금리 비중<sup>9)</sup>도 높아 금리상승 시 차주의 상환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

## 분할·일시상환 대출 비중<sup>1)</sup> 신용대출 증가율<sup>2)</sup>



주: 1) 2021년 9월말 기준  
2) 전년동기대비  
3) 한도대출, 리볼빙 등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 향후 자영업자의 재무건전성 전망

최근 코로나19의 상황이 쉽게 개선되지 않는 모습이나, 광범위한 백신접종<sup>10)</sup> 등으로 자영업자의 매

6) 2021년 1~11월중 상가 경락률(낙찰가/감정가)은 70.2%로 아파트(101.0%)에 비해 크게 낮다.

7) 2021년 9월말 현재 개인사업자대출 만기는 6개월 이내 30.4%, 6개월 초과 1년 이하 39.4%, 1년 초과 2년 이하 12.5%, 2년 이상 17.4% 등으로 분포하고 있다.

8) 2021년 9월말 현재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연체율(국내은행 기준)은 0.11%, 신용대출 연체율은 0.29%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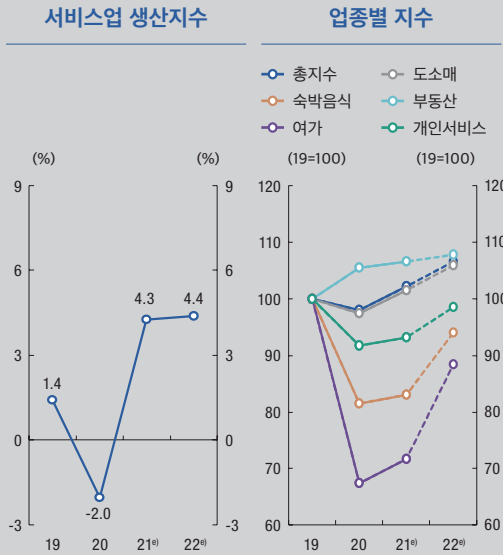
9) 2021년 9월말 현재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의 변동금리 비중(국내은행 기준)은 각각 66.1% 및 78.5%이다.

10) 2021년 12월 8일 현재 한국의 백신 접종률은 1차 접종률 83.3%, 2차 접종률 80.7%이다.

11) 자영업자의 업종별 매출은 GDP 전망 및 민간소비 개선 경로 등에 부합하도록 회복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가계부채 DB, 가계금융복지조사 및 가계동향조사 등의 통계청 자료 등을 활용하여 2021년 및 2022년 자영업자의 부채 및 소득 등을 추정하였다.

출<sup>11)</sup>은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부채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2022년 3월에는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sup>12)</sup>의 종료가 예정되어 있다. 자영업자의 DSR 지표 전망 등을 통해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 유예 종료 효과<sup>13)</sup>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 자영업자의 매출액 회복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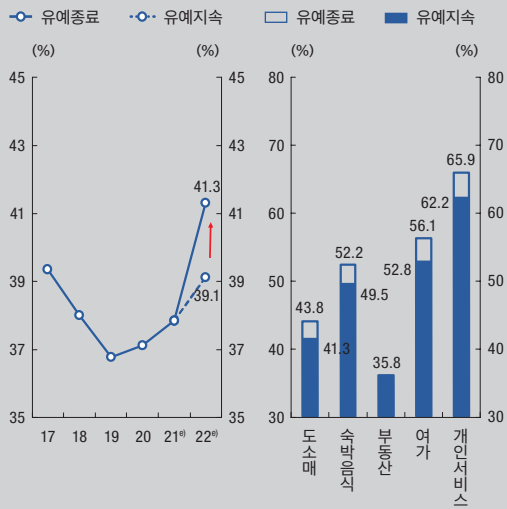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시산, 통계청

2022년 3월 원리금 상환유예가 예정대로 종료되는 경우 자영업자는 기존에 유예되었던 원리금 상환액을 추가 부담하면서 DSR(41.3%)은 지원조치가 지속되는 경우(39.1%)에 비해 2.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 업종에서 DSR이 상승하는 가운데 특히 여가 및 개인 서비스업 등에서 상대적으로 큰 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자영업자의 DSR 변화

#### 자영업자 가구의 DSR 변화      업종별 DSR 변화<sup>1)</sup>



주: 1) 2022년 전망치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한국은행 시산, 통계청

### 시사점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대출은 가계대출을 지속적으로 큰 폭 상회하여 증가하고 있다.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 등의 비자영업자에 비해 높은 원리금 상환 부담과 부진한 소득개선 흐름, 취약한 부채구조 등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지원 등으로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폐업은 코로나19 이전보다 오히려 감소하였다. 정부의 금융지원 등은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자영업자의 급격한 채무 부실위험을 완화한 측면이 있으나 부채를 누증시키는 부작용은 없는지 유의할 필요가 있다.

12) 2020년 4월부터 소상공인에 대해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동 조치는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세 차례 연장(20년 9월, 21년 3월, 21년 9월)되었으며 2022년 3월에 종료될 예정이다.  
13)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실적 및 신청요건 등을 감안하여 개인사업자대출 중 13%가 자영업자 원리금 상환유예를 받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만기연장 및 유예되었던 원리금은 상환유예 종료 시 5년간 분할상환되는 것으로 전제하였다.

한편 2022년 원리금 상환유예 종료시 자영업자의 DSR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발생과 재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재강화 등이 반복되는 경우 자영업 매출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될 수 있어 관계당국 및 금융기관은 관련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다하는 한편 취약·고위험 자영업자들에 대한 맞춤형 관리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sup>14)</sup>

중장기적 시각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서비스 거래 촉진 등으로 향후 소비행태가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자영업 관련 제반 정보를 축적·제공하는 시스템<sup>15)</sup>을 정비하는 등 보다 구조적인 관점에서 자영업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14) 신규 자영업자는 사업자금을 금융기관 차입(26.0%) 외에 본인과 가족이 마련한 목돈(68.0%), 친지 또는 동업자의 자금(6.8%), 타인(친지, 동업자 제외)에게서의 차입(5.2%) 등으로 조달(21년 8월, 통계청)하고 있어 자영업자의 부실은 개인사업자대출을 포함한 본인과 해당 금융기관의 부실 뿐만 아니라 주변 가계부채의 부실로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15) 자영업자에 대한 비대면거래 교육 및 컨설팅 등을 활성화하는 한편 자영업자의 창업이 특정 분야로 과열 집중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와 결합한 상권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